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精密發掘調查 學術諮問會議 第291輯

거제 둔덕기성
精密發掘調查 學術諮問會議

2015. 10.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도읍번호 348022(신용)
 348024(통영)
 348031(가조)
 348033(거제)

1. 마장고분군
2. 거림리유적
3. 견내량왜성지
4. 오랑성지

-범례-
■ 삼국시대
■ 통일~조선시대
■ 조선시대

0 0.75 1.5km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 -

도업번호 34802060
34803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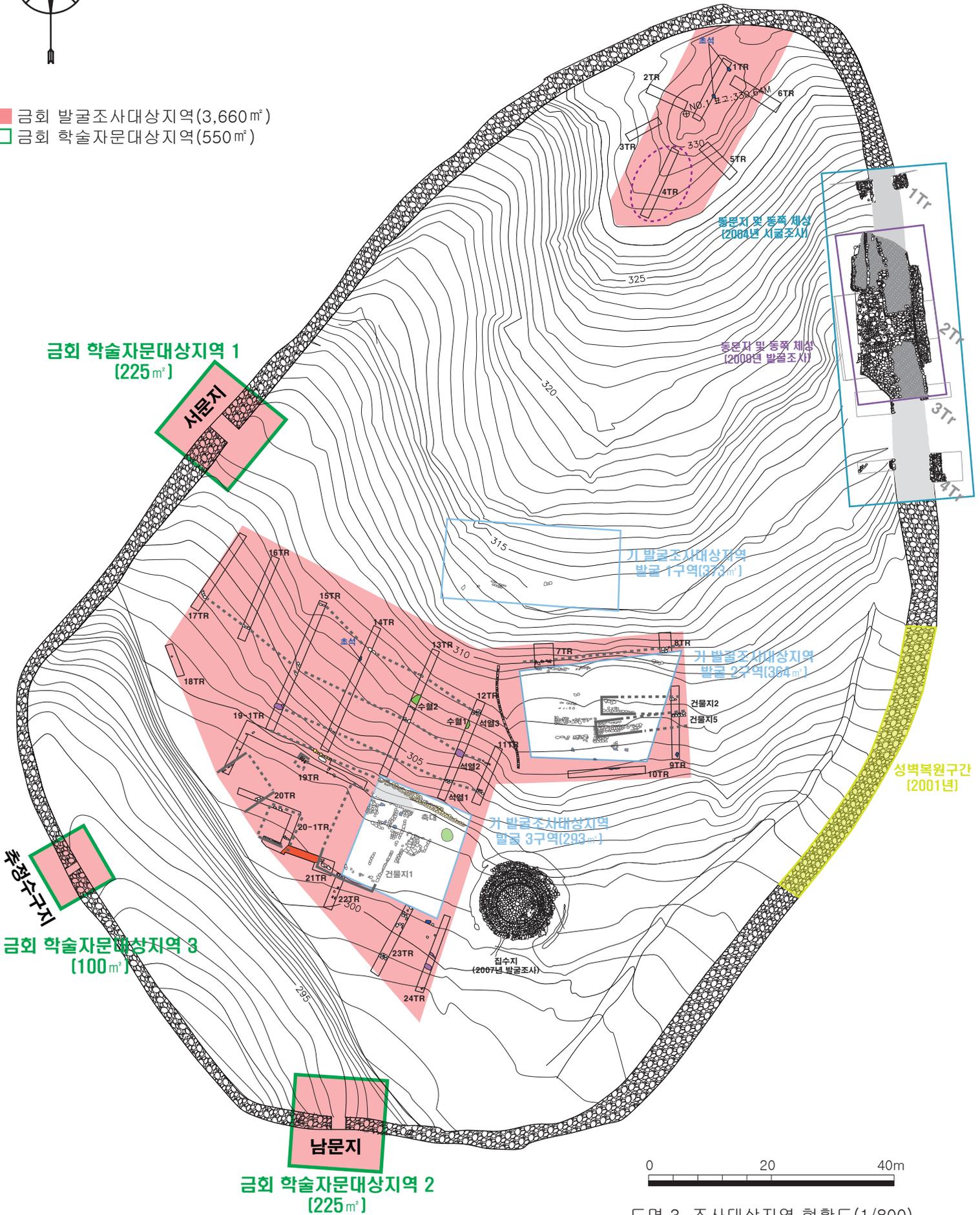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역
(전체 3,660㎡ 중 금회 550㎡)

0 150 300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 금회 발굴조사대상지역(3,660㎡)
- 금회 학술자문대상지역(550㎡)



도면 3. 조사대상지역 현황도(1/800)



도판 1. 조사대상지역 항공사진

I. 조사개요

1. 유적명

거제 둔덕기성

2. 허가번호

제2015-799호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 95번지 일원

4. 조사유형

정밀발굴조사

5. 조사기간

2015년 8월 11일 ~ 12월 12일

6. 조사면적

3,660㎡

7.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8.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 자문위원 : 심봉근(전 동아대학교 총장)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사원 : 구형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준조사원 : 김민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보조원 : 주완립(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건준(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9. 조사의뢰기관

거제시

II. 조사내용

1. 경과

조사대상지역인 거제 둔덕기성(사적 제509호)은 둔덕면과 사등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牛頭峰(해발 435m) 줄기 야산(해발 326m)에 축조된 평면 타원형의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체성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며, 규모는 장축 약 200m, 단축 약 125m, 전체 둘레는 526m이다.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11호(‘廢王城址’)로 지정·보호되어 오던 중 6차례의 학술조사와 2차례의 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거제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이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8월 24일 ‘屯德岐城’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509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에도 둔덕기성의 성내 건물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2013년 12월 1~3구역으로 세분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2·3구역의 건물지가 조사구역 밖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14년 1월 22일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2구역과 3구역은 연속선상에서 확장조사가 필요하므로 발굴조사기관과 협의, 건물지의 규모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시굴)조사 결과 건물지의 배치와 규모가 파악되면, 유적보존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 수립 추진”하라는 조치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신하였다.(발굴제도과-977, 2014.01.29.)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및 문화재청의 통보에 따라 2014년 4월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2·3구역으로 건물지가 연장된다는 것을 밝혔다.

[표 1] 거제 둔덕기성 학술조사 및 복원사업내용

시행연도	학술조사 및 복원내용	기관
1999	폐왕성지 정밀지표조사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동남쪽 성벽 복원(56.5m)	거제시청
2004	동문지 및 동쪽 성벽 시굴조사	동아문화연구원(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집수지 정밀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집수지 보수 및 복원	거제시청
2009	동문지 발굴조사 및 성내 건물지 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거제 둔덕기성 내 건물지 정밀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4	거제 둔덕기성 내 건물지 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5	거제 둔덕기성 내 건물지·서문지·남문지·수구지 정밀발굴조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금회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밝혀진 건물지의 범위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3,110㎡)를 실시하고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서문지·남문지·추정 수구지 등(55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둔덕기성의 정비 및 복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체 정밀발굴조사 대상지역 중, 우선적으로 조사

가 완료된 서문지·남문지·수구지에 대한 내용을 금번 학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 보존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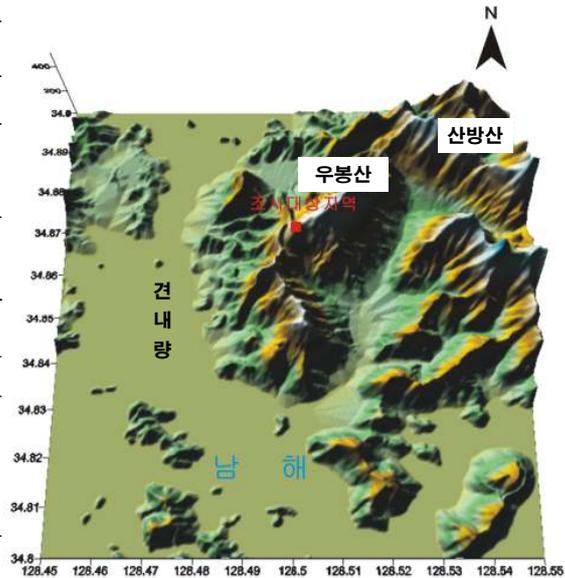
2. 조사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변유적

1) 자연환경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는 거제시는 30여개의 대소 도서로 다도해를 이루고 있는 남해안의 동부에 해당한다. 대소 도서의 분포는 거제시의 동쪽에 비해 남서쪽이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도서는 육화되었던 지형이 해수의 침수에 따라 고봉들이 잔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후빙기에 들어 해수면의 상승 또는 지반의 침강에 따라 거제시는 매우 심한 만입과 돌출의 굴곡을 나타낸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에 기인된 침식기 준면의 상승에 따라 해안 부근에서는 적평형작용이 일어나 많은 곳에서 소규모의 해안평야들과 충적지가 형성되어 산록완사면을 이루는 곳도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거제시 서쪽의 둔덕면에 위치하며 북서쪽의 망치산(362m)에서 시작된 능선이 할미봉(411.2m)-둔덕기성(326m)-별학산(338.8m)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서쪽에는 견내량, 남쪽에는 남해가 위치하며 북동쪽으로는 거제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방산(507.2m)이 위치하고 있다.



도면 4.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

2) 주변유적

(1) 馬場古墳群¹⁾

거림리유적의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이 마장마을이다. 이 마을은 거제 고군현치 소지 및 둔덕기성과 관련하여 관아에서 필요한 말을 사육하던 목장이 있었다고 하여 마장마을이라고 한다. 마장마을의 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는 고분으로 판단되는 봉분 1기와 석곽묘로 추정되는 석열이 여러 군데 남아 있다. 봉분의 중앙부에는

1) 東亞文化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 2005.

남-북향으로 2열의 석열이 남아 있는데, 잔존상태로 보아 황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석실은 길이 100cm, 너비 170cm 정도의 규모로 2단 정도 잔존하며 상부는 유실되고 하부만 남아 있다. 석곽묘로 추정되는 석열 역시 1~2단 정도만 잔존한다.

(2) 巨林里遺蹟²⁾

둔덕면 거림리 일대에 위치하는 거제 고군현치소지로 추정되는 유적으로서 인근에 있는 둔덕기성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거제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일부 범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지, 축대, 초석 등이 조사되었다. 유구들의 배치상태는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선상을 이루는 삼국시대 사원의 가람배치나 고려·조선시대 향교 건물의 배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 건물이 아닌 관아와 같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건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들은 고려시대의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철기편, 그리고 조선시대에 사용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이 주류를 이루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특히 유물 중 ‘裳四里’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는 최소한 고려 이전의 거제군현의 위치가 거림리 일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三國史記』 지리지에 거제가 문무왕때 裳郡이었으나 경덕왕때 巨濟郡으로 改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상군의 위치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임을 시사하고 있다.

(3) 見乃梁倭城址³⁾

사동면 덕호리 267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견내량왜성은 광리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광리왜성 또는 왜성동왜성으로도 불리운다. 舊거제대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난 해안도로를 따라 약 1km 정도 가면 광리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의 바로 남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토루로 축조된 성벽의 윤곽은 확인하기 힘든 상태이다. 거제시에 축성된 나머지 왜성(장문포왜성·송진포왜성·영등왜성)은 산상에 석축으로 축조된데 비해 견내량왜성은 평지와 같은 구릉 단부에 토축으로 축조되었다. 이곳 견내량은 거제시에서 육지와 가장 근접한 곳으로 남해안의 관방과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곳에 왜성이 축조되었다는 것은 해협을 통과하는 당시 조선수군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성벽의 曲輪은 크게 6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이 되는 곡륜의 북쪽과 동쪽으로는 土橋를 사이에 두고 폭 약 12~14m, 깊이 2~3m의 溝를 두르고 있다. 출입구(虎口)의 형태는 卍入式으로 산상에 설치된 왜성의 출입구에서 보이는 복잡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현

2) 東亞大學校博物館, 『巨濟 巨林里遺蹟』, 1997.

3) 東亞文化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 2005.

재 가장 명확하게 잔존하고 있는 토축의 양상으로 보아 성벽은 점토와 잡석을 섞어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구간은 석축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훼손이 심해 정확한 양상과악은 어렵다. 그리고 왜성의 서쪽 해안가에서 석축이 일부 확인되는데, 거제도에 축조된 왜성 중에 유일하게 잔존하는 「九大圖」에도 표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왜성과 관계된 석축일 가능성이 높다. 견내량왜성의 축성시기는 선조 27년(1593)에 축조되었다는 설과 정유재란 후에 축조되었다는 설이 있다.城主에 대해서는 일설에 宗義智家臣이 축조하였다고 전해지며, 伴三千雄씨는 정유재란시의 漆川梁海戰 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宇都宮高麗歸陣物語』라는 일본 측 기록의 「瀬戸の城, 柳川下野居城」이라는 글에서 견내량왜성을 柳川調信이 지킨 唐島瀬戸口の 성으로 비정하고 있다.

(4) 烏梁城址⁴⁾(경상남도 기념물 제109호)

오량성은 사등면 서쪽의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해안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오량성 근처까지 見乃梁의 해안선이 다달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조선시대에 거제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驛으로서의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생각된다. 이 성은 1993년 12월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북쪽 치성이 조사된 바 있으며 나머지 성벽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복원사업으로 인해 원형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체성은 북쪽과 동쪽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남쪽과 서쪽은 일부 복원되었다. 현존하는 체성은 지형적으로 東高西低의 충적대지 위에 평면형태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성의 구조는 체성 사방에 중간을 개구하여 4개소의 문지를 두고 문지 옆과 城隅部에는 方臺狀의 敵臺 및 雉城을 배치하였으며, 체성 바깥에는 너비 20m의 해자를 두르고 있다. 문지는 지금도 성내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므로 그 흔적은 알 수 있으나 웅성 등 각종 구조가 원상태로 잔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적대 및 치성은 평면형태 방형으로 모두 8개소가 확인된다. 성벽의 축조수법은 조선전기에 축조된 일반 평지읍성들과 같이 지면에 자갈을 깔고 다진 뒤 그 위에 장대석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외벽은 자연대석을 세워 기단석으로 삼았으며, 城石間에는 작은 돌을 끼워 쌓았다. 그리고 내벽은 막돌을 지면에 거의 수직되게 쌓고 그 사이 적심은 잡석을 채우는 협축 형태이다. 위치에 따라 지대석 아래의 지반에 깔린 자갈층이 이중·삼중으로 된 곳도 있다. 이 성은 조선 燕山朝에 석축으로 개축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현존 둘레 1,150m, 높이 4m, 폭 4.5m이다.

4) 東亞大學校博物館, 『巨濟市城址調査報告書』, 1995.

3.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금회 서문지·남문지·수구지의 정밀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통해 보고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성벽 및 성문을 중심으로 하였고, 문지는 15×15m, 추정 수구지는 10×10m 범위를 설정하여 전면 제토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유구의 중심에는 기준독을 설치하여 전체 층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지 및 추정 수구지 조사는 축조시기, 구조 및 축조방법 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서문지, 남문지, 추정 수구지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1) 서문지(22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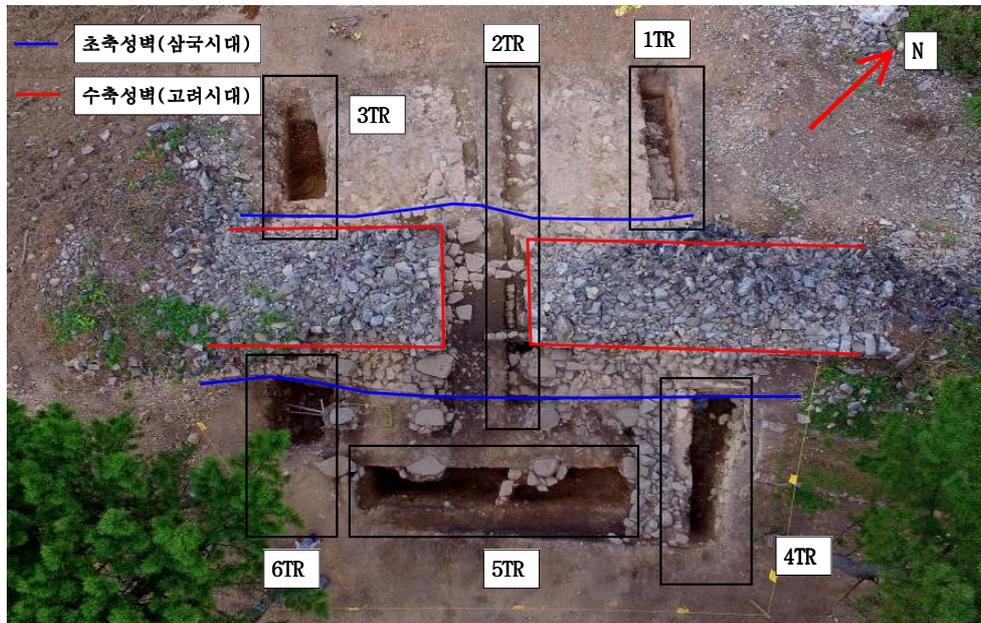
도판 2. 서문지 조사전 전경(좌 : 외벽부, 우 : 내벽부)

서문지는 둔덕기성 서쪽의 해발 약 304m 선상에 위치하며, 조사전 붕괴된 성돌과 잡목 등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먼저, 조사는 우거진 잡풀과 무너진 성돌을 제거하면서 잔존 문지와 성벽을 노출한 후, 성벽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4개소의 트렌치를 탄력적으로 설치하였다. 각 트렌치는 기반층까지 굴착하여 성벽의 축조수법 및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초조사된 동문지⁵⁾와 동일하게 삼국시대 구조와 고려시대의 수축구조로 대별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巨濟 屯德岐城 東門·建物址 金海 古邑城Ⅱ 陸』, 2011, 의 보고서를 참조.

① 삼국시대



도판 3. 수축 서문지 전경(항공촬영)

외벽부 조사결과(1~3트렌치), 초축성벽은 고려시대 수축성벽 아래에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성벽의 진행방향인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경사면에 형성된 기반암을 계단식으로 굴착한 후, 약 4~6단(80~120cm) 정도의 기단석축을 조성하고, 약 1m 정도 내측으로 들어서서 평균 20×40cm 규격의 할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바른층쌓기하고⁷⁾, 기단석축과 외벽 사이에는 기단보축을 시설하였다. 이는 동문지의 초축성벽 축조수법과 동일한 양상이다.



도판 4. 서문지 외벽부 1트렌치 토층 전경(남-북)

6) 동문지 외벽부에서도 성벽 진행방향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굴착하고 기단석축을 시설하였다.

7) 초축성벽은 기단석축에서 약 7단(170~180cm)정도 잔존하고 있다.



도판 5. 서문지 외벽부 3트렌치 토층 전경(북-남)



도판 6. 서문지 외벽부 초축성벽 근경(좌 : 1트렌치, 우 : 3트렌치)

내벽부 조사결과(4~6트렌치), 기반암을 계단상으로 절토하고, 그 상부에 평균 20×50cm규격의 할석으로 축조하였는데, 성벽의 축조수법 및 토층양상을 고려할 때, 기저부에서 4단까지는 되메우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벽은 11단(약 210cm) 잔존하고 있다.



도판 7. 서문지 내벽부 4트렌치 초축성벽 및 토층 전경

한편, 고려시대 서문지 통로부에 설치한 2트렌치에서 배수로가 노출되었는데, 배수로는 약 20×40cm 규격의 할석을 세워서 폭 30cm 너비로 배수로 벽석을 구축하여 성벽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설치하였다. 배수로 벽석 상부면에 평균 10×30cm 규격의 편평한 할석으로 개석을 덮은 암거식의 형태이다. 외벽에서 내벽부로 진행하는 약 110cm 구간은 개석이 유실된 상태이다.

배수로의 내벽부 입수구는 해발 약 304.4m 선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 출수구는 해발 303.6m로 내·외벽간 수구의 높이 차이는 약 80cm이다.

둔덕기성 서문지는 상부의 고려시대 문지구조로 인해 초축 당시의 명확한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하동 고소성⁸⁾ 및 김단산성⁹⁾과 같이 문지에 배수로를 설치한 사례와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고식기와 등의 유물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 서문지인 이곳에 초축 문지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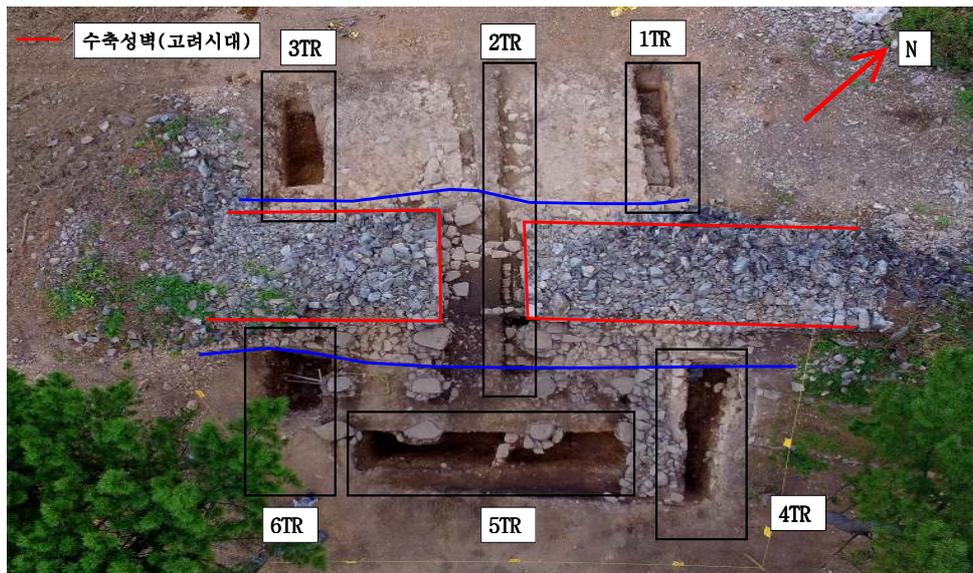


도판 8. 초축성벽 배수로 전경(항공사진)



도판 9. 초축성벽 배수로 근경(서-동)

② 고려시대



도판 10. 수축 서문지 전경(항공촬영)

8) 東亞大學校博物館, 『河東故蘇城址試掘調査報告書』, 2000.

9) 순천대학교박물관, 『순천 김단산성 I』, 2004.

수축 서문지는 무너진 성석과 퇴적된 부식토 등을 제거하자 외벽과 통로부의 계단, 내벽, 문루초석(3×2칸), 문루측벽 등의 시설이 노출되었다.

먼저 고려시대 수축 서문지의 성벽은 초축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정리하여 약 80cm 두께로 점토와 잡석으로 정지한 후, 그 상면에 평균 20×40cm 규격의 할석을 사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이 때, 수축성벽은 초축성벽에서 50~200cm가량 들어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너비는 약 450cm이다.



도판 11. 서문지 외벽부 전경(서-동)



도판 12. 서문지 내벽부 전경(동-서)

상기한 수법으로 축조된 수축성벽은 약 300cm 너비로 통로부를 개구하였는데, 통로부 바닥에는 3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이 시설되어 있다. 북쪽 측벽은 상당부분 붕괴되어 최대 1~6단(최대 100cm) 정도 잔존하며, 남쪽 측벽은 5~8단(최대 150cm) 정도 잔존하고 있다.



도판 13. 서문지 통로부 전경(서-동)



도판 14. 서문지 북쪽 측벽(남-북)



도판 15. 서문지 남쪽 측벽(북-남)



도판 16. 서문지 계단 전경(항공촬영)



도판 17. 서문지 계단시설 근경(남서-북동)

내벽부에서는 초석 11매와 적심 1기가 조사되었는데, 문루의 평면형태는 전면 3칸, 측면 2칸이며, 전면 어칸 너비는 약 380cm, 협칸 너비는 약 280cm이며, 측면 각 협칸 너비는 약 240cm로 동문지와 동일한 규모를 보인다.

한편, 수축 문지 북쪽 초석열과 맞물려서 수축 성벽과 유사한 수법으로 축조된 문루측벽이 1~2단(약 50cm) 정도 잔존하고 있다. 문루측벽은 성벽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는데, 조사 경계 밖으로 연결되고 있어 금번 정밀발굴조사에서는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고려시대 서문지 구조는 동문지 구조와 거의 흡사한 양상이다.



도판 18. 서문지 문루 전경(항공촬영)



도판 19. 동문지 문루 전경(항공촬영)



도판 20. 서문지 문루측벽(남동-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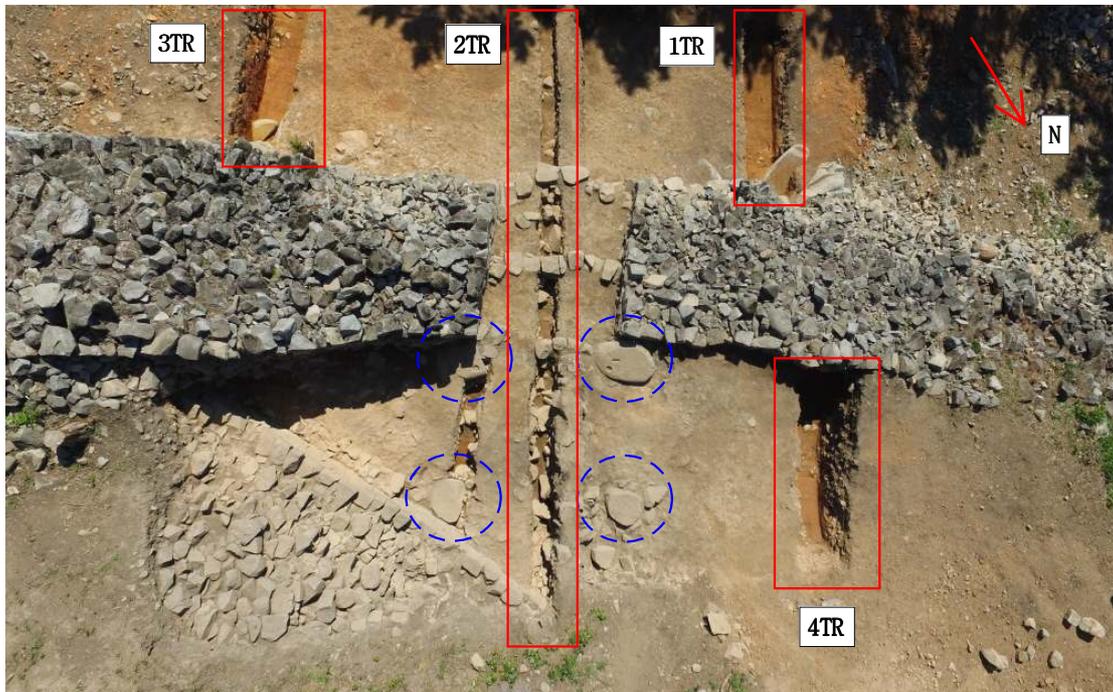


도판 21. 서문지 문루측벽 세부(남-북)

(2) 남문지(22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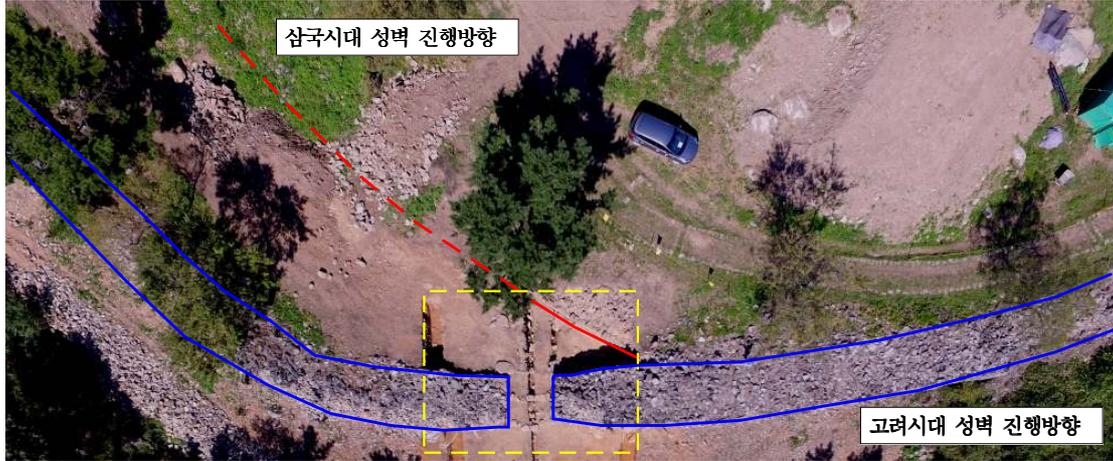
둔덕기성의 성내 남쪽에 급경사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남문지는 급경사면의 남동쪽에 이격되어 위치한다. 조사전 무너진 성돌과 잡목으로 덮혀 있었으며, 문지 통로부의 동쪽과 서쪽 측벽이 일부 노출되어 남문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남문지 동쪽 내벽부를 노출하는 과정 중 조사구역 북동쪽 부근에서 남문지와 진행방향이 다른 성벽이 조사되었는데, 노출을 진행한 결과, 바른층쌓기한 삼국시대 성벽의 외벽과 적심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판 22. 남문지 전경(항공촬영)

① 삼국시대



도판 23. 삼국시대 성벽 전경(항공촬영)



도판 24. 삼국시대 성벽 전경(항공촬영)

삼국시대 성벽은 남문지 조사를 위해 동쪽 경계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노출되었다. 현재까지 둔덕기성의 조사성과를 통해 볼 때, 초축성벽 위에 수축성벽이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둔덕기성의 규모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금회 정밀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남문지를 포함하는 남쪽 성벽은 초축성벽에서 남쪽으로 이격되어 증축¹⁰⁾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초축성벽은 수축 남문지 동쪽 측벽의 동쪽으로 570cm 이격된 지점에서 북서쪽

1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고고학 전문사전-성곽·봉수편』, 2012.

- 수축 : 기존의 성벽 중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다시 쌓은 것.
- 개축 : 성 또는 건물 등이 허물어졌거나 오래되어 낡은 것을 고쳐 쌓되, 재료를 달리하여 목책은 토축으로, 토축을 석축으로 고쳐 쌓는 등 원래의 성벽을 재질이 다르거나 쌓은 방법을 달리하여 쌓는 것.
- 증축 : 성곽 등의 구조물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초기의 건축 환경이 변하게 되는데 이 때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금번 정밀발굴조사에서는 조사구역의 한계로 외벽과 적심부의 약 900cm 구간만 조사 할 수 밖에 없었다.

성벽은 평균 20×35cm 규격의 할석을 사용하여 바른층쌓기하였는데, 현재 3~5단(30~60cm) 정도 잔존하며, 외벽 기저부에는 기단보축도 일부 노출되었다.



도판 25. 삼국시대 성벽 전경(남서-북동)



도판 26. 삼국시대 성벽 기단보축 전경(남-북)

② 고려시대

남문지는 초축성벽이 붕괴된 후 퇴적된 층의 상부면에 축조되었다. 고려시대 남쪽 성벽 증축구간의 동편에 치우쳐 있는데, 평균 24×36cm 규격의 할석을 사용하여 허튼층쌓기하였다.

통로부는 260cm 너비로 개구하였으며, 바닥에는 약 170~190cm 간격으로 3단의 계단이 시설되어있다. 통로부의 동쪽 측벽 높이는 최대 8단(약 173cm) 잔존하며, 남쪽 측벽 높이는 최대 4단(약 100cm)가량 잔존한다.

내벽부는 문루 초석 4매가 노출되어 전면 1칸, 측면 1칸의 문루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규모는 정면 380cm, 측면 310cm이다. 이 중 북동쪽의 초석은 초축성벽의 기단보축 상부 퇴적토를 정리하고 그 상부에 초축성벽과 연결되게 설치되어 수축 문지를 조성할 당시 초축성벽의 일부 구간은 어느 정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27. 남문지 내벽부 전경(항공촬영)



도판 28. 남문지 외벽부 전경(항공촬영)



도판 29. 통로부 동쪽 측벽 전경(서-동)



도판 30. 통로부 서쪽 측벽 전경(동-서)

(3) 추정 수구지(100m²)



도판 31. 추정 수구지 전경(항공촬영)



도판 32. 추정 수구지 외벽부 전경(남-북)

추정 수구지는 남쪽 성벽의 서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는데, 1991년 지표조사 당시 추정된 지역이다. 중심부에 기준독을 설치하고 내·외벽 모두 기저부까지 노출한 결과, 내·외벽에서 수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벽에서 등성시설로 추정되는 석축시설 2기가 조사되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벽부는 평균 25×40cm 규격의 할석으로 자연퇴적층상에 기단을 조성한 후 내벽쪽으로 약 5~10cm가량 들여서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내벽부의 잡석층을 시설한 높이까지(약 140cm) 축조한 후, 내벽과 외벽을 동시에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벽부는 상당부분 붕괴되어 2~5단(40~100cm)가량의 벽석만이 잔존하고 있으며 외벽부에서 출수구로 확정할 수 있는 흔적은 없었다.

내벽부는 잡석층을 정리한 후 기저부를 조성하고 축조하였는데, 입수구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다.



도판 33. 내벽부 토층 전경(서-동)



도판 34. 외벽부 토층 전경(서-동)

내벽부 조사에서는 동쪽과 서쪽 경계에 물려서 너비 약 260cm의 장방형 석축시설 2기가 일부 노출되었다. 이 석축은 성벽과 연접하여 축조되었으며 내벽 기저부와 같은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성벽방향으로 석축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상기한 점을 고려할 때 장방형 석축시설은 등성시설로 추정된다.

한편, 이 석축시설은 약 75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조사경계 밖으로도 수기가 육안으로 관찰된다.



도판 35. 수구 추정지 내벽부 전경(북-남)

(3) 출토유물

금회 서문지, 남문지, 추정 수구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과정에서는 삼국시대 기와류, 토기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대부분 서문지와 남문지 등 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기와류는 문루 등의 건물지와 관련된 유물로서 7세기를 전후로 편년할 수 있는 단판 타날된 고식기와를 비롯하여, 복합문, 어골문, 화문, 명문 기와편 등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양이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토기류는 고배 배신편, 이단투창고배 대각편¹¹⁾ 및 주름무늬토기편¹²⁾, 부가구연토기편 등 초축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내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기종들이 출토되었다.

11) 잔존상태 등을 통해 볼 때 정확한 시기편년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둔덕기성에서 출토된 고배 및 개 등의 초축시기 유물의 특징을 고려할 때 7세기대로 추정된다.

1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거제 폐왕성 집수지』, 2009.

주름무늬토기편은 집수지 및 동문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 유물로 9세기 전반에서 10세기 후반으로 상정되고 있다.



도판 36. 삼국시대 기와류



도판 37. 삼국시대 토기류



도판 38. 고려시대 기와류



도판 49. 고려시대 명문기와(‘八月四日’)



도판 40. 고려시대 명문기와(‘草’)

Ⅲ. 조사성과 및 조사단의견

1. 조사대상지역인 거제 둔덕기성(사적 제509호)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 9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금회 정밀발굴조사는 성내 건물지(3,110㎡)와 서문지(225㎡)·남문지(225㎡)·추정 수구지(100㎡) 등 총 3,660㎡인데, 금번 학술자문회의에서는 현장조사가 완료된 서문지·남문지·추정 수구지에 대하여 보고하고 학술적 자문을 얻고자 한다.

2. 서문지는 삼국시대 초축부와 고려시대 수축부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 초축 성벽 위로 고려시대 문지가 개구되어 있다.

삼국시대 성벽은 외벽과 기단보축, 내벽 등이 조사되었으며, 내·외벽을 관통하는 압거식 수구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문지와 중복되어 있는 등 조사상의 한계로 삼국시대 초축문지의 유존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고식기와류 등의 유물과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성벽부에서 내외벽을 관통하는 배수로가 시설된 점 등으로 보아 문지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서문지는 삼국시대 성벽을 기초로 점토와 잡석 등으로 정지한 후, 300cm 너비의 통로부와 함께, 측벽과 주변 성벽을 허튼층쌓기로 수·개축하였다. 통로부에는 3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시설하였으며, 내벽부에는 정면3칸, 측면 2칸의 문루 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문루 초석 북쪽에는 문루 측벽이 시설되어 있으나 조사범위 밖으로 연장되고 있어 전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는 어골문, 화문, 명문 등이 타날된 고려시대 기와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서문지는 축조수법과 구조면에서 기 조사되었던 고려시대 동문지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3. 남문지 조사결과, 삼국시대 초축성벽이 성내의 급경사면으로 연장되고, 수축성벽은 초축성벽에서 남쪽으로 이격되어 증축되어 있다. 삼국시대 초축과 관련된 문지는 금회 남문지 조사지역 내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증축된 수축 성벽의 동편에서 남문지의 구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초축성벽은 외벽부와 기단보축, 그리고 내부 적심구조만이 일부 노출되었다. 장방형 석재로 바른층쌓기하고, 기단보축을 시설한 축조수법으로 볼 때, 기조사된 성벽구간에서 파악된 삼국시대 성벽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성벽이 동일 규모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삼국시대 성벽을 고려시대에 수·개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 성벽을 증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둔덕기성 조사와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려시대 남문지는 260cm 너비의 통로부와 함께, 측벽과 주변 성벽을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통로부에는 3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시설하였으며, 내벽부에는 정

면 1칸, 측면 1칸의 문루 초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문지 및 동문지와 비교할 때, 소규모 문루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는 어골문, 화문 등이 타날된 고려시대 기와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금번에 출토된 ‘八月四日’ 명문기와는 동문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4. 추정 수구지 조사결과, 예상하였던 수구는 조사되지 않았다. 외벽부는 허튼층 쌓기하여 붕괴가 심한편으로 기단을 비롯한 하부 벽석구조만 잔존하고 있으나, 내벽부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내벽부에서는 등성시설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석축시설 2기가 확인되었으나 조사구간의 한계로 일부만이 노출되었다. 인근에는 동일한 성격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 다수가 등간격으로 배치된 양상이 육안으로 관찰되어 고려시대 성벽 축조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5. 서문지와 남문지 추정 수구지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초하여, 금번 학술자문회의를 통하여 향후 조사방향과 복원 및 보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學術諮問會議 第291輯

거제 둔덕기성

精密發掘調査 學術諮問會議

인 쇄 일 / 2015년 10월 22일

발 행 일 / 2015년 10월 23일

編輯·發行 /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5136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4길 48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